

다산포럼

진실, 그리고 듣고 싶은 한 마디

김정남
전언론인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그보다 더한 유서조작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니 나라 끌이 말이 아니다. 1991년 5월 8일, 당시 재야 민주화운동 단체 전민련의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이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한 후 건물 아래로 물을 던져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망 현장에서는 노태우 정권을 비난하는 그의 유서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유서가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동료간 부인 강기훈이 김기설의 자살을 부추겼 목적으로 써준 것이라 하여 강기훈을 자살방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의 상상력이 놀라울 뿐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내세우는 증거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 실장이던 김형영이 김기설의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정한 것이 전부였다. 그

김형영은 이 사건 감정 후, 다른 사건에서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한 행위로 구속되었다. 강기훈은 1, 2심을 거쳐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확정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7개 사설 감정기관에 팔적감정을 의뢰, 유서 작성자는 분신한 김기설이라는 최종 감정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강기훈은 이 권고에 따라 2008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9월, 재심개시를 결정했으나 검찰은 이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은 3년만인 2012년 10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대법원에 재심개시 여부가 지루하게 계류 중일 때 나는 강기훈이 간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재심을 해보지도 못한 채,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무척이나 조마조마했었다. 그 무렵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에서도 서둘러 이 사건에 대한 그의 구술을 녹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12년 12월 20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시된 재심은 마침내 지난 2월 13일, 강기훈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실제로 23년만의

일이었다.

강기훈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가 유감 표시조차 하지 않는구나 하는 게 처음 든 생각이었다”면서 “재심결과와 관계없이 (검찰의) 사과 한 마디가 나에게는 가치있고 소중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언론은 그의 표정이 담담했고, 그의 말은 매우 운전했던 것으로 봤지만, 나는 그의 팔적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명되어 그는 기소된 지 1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 드레퓌스는 그의 부대로 복귀한다.

요컨대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단 한 마디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바람이 아니더라도 그 말은 검찰과 법원이 반드시 먼저 했어야 할 말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이고 정의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 말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자신도 23년 내내 악몽과도 같았던 이 사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했다”는 사과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정’마저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오히려 강기훈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항고했다고 한다. 역사적인 무죄 판결은 한 때의 해프닝으로 망각의 높에 빠져들고, 강기훈의 고통은 그만큼 더 연장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반짝 드러났던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감하게 되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지만,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유고가 발생한다면 저절로 공소기각이 되기 때문에 (재심청구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그것을 노린 검찰의 계산된 시간 끌기라는 얘기도 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드레퓌스 사건에서는 드레퓌스가 작성하여 적국에 넘겼다는 문제의 기밀문서는 그의 팔적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명되어 그는 기소된 지 1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 드레퓌스는 그의 부대로 복귀한다.

그 장면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질령 존장이 도열한 병사를 앞에 지나와 그의 칼을 빼어 들었다. ‘공화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본관은 그대 드레퓌스에게 레종드뇌르 훈장을 수여한다.’ 장군은 이렇게 선언하고 칼로 드레퓌스의 어깨를 세 번 두드렸다. 식의 종료를 알리는 트럼펫이 세 번 울렸다. 만장의 프랑스인들은 외쳤다. 프랑스 만세! 진실 만세! 그리고 드레퓌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이석태 변호사의 최후변론 요지에서)

우리도 이 사건을 놓고 “대한민국 만세! 진실 만세!”를 부르고 싶다. 그리고 강기훈의 눈에서 그런 눈물을 보고 싶다. 아아, 그러나 유서조작, 증거조작의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양동옥의 S 스토리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부모의 궁금증 (1)

제외한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이 프로그램은 7, 12, 15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라는 부연 설명이 붙는다.

청소년 시청자가 텔레비전 시청 등급을 어겼다고 해서 위법한 행위니 저벌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 지도는 온전히 부모나 보호자의 몫으로, 자녀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보고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 혹은 성적인 행동을 무턱대고 모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 행동의 의미나 옳고 그름을 들어갈 듯 정신이 나가 더더군요, 키스 장면이 끝나자 이어가며 이런 말을 톡 던지는 겁니다. “엄마, 나 이상해. (성기를 가리키며) 여기가 찌릿찌릿 아파.”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치켜뜨고 일그러진 얼굴로 아이에게 “너 미쳤어?” 쏘아붙였는데, 뭔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엔 뭐라고 이야기 해줘야 할까요?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한숨 섞인 질문이다.

우리나라는 텔레비전 시청 등급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 ‘언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청 가능 나이에 맞게 등급을 매긴다. 뉴스와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을

써 그런 것 보면 못써.”라고 훈계조로 응수하거나 “너는 함부로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당부하기에 급급하다. 요즘 가족 드라마의 성적 표현의 수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고려해서 부모는 미봉책을 남발하지 말고 아이와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로 아이의 궁금증을 지도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앞서서 편지를 가르쳐주거나 하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 키스 장면에 성기가 아프고 그 느낌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네 생각에는 거기가 왜 아픈 것 같아?”라고 되물어 볼 수 있다. 사실 아이가 부모에게 그런 궁금증을 표현했다는 것은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있으며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이가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나도 모르게 기분이 이상해져서.”라고 답할 수 있다. 이럴 때에 부모는 아이가 받은 신체적 느낌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해줘야 한다. “그건 네가 키스 장면을 보고 흥분해서 그렇단다. 너처럼 몸이 찌릿찌릿해지는 것을 흥분이라고 해.”

그리고 그 흥분의 경험이 이상한 느낌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너는 네 몸의 변화가 이상하다고 했지만, 사실 엄마 아빠도 키스 장면을 보면서 너랑 똑같이 몸이 찌릿찌릿해졌다. 몸이 찌릿찌릿해졌다”는 것

은 성적 자극에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거야. 그것은 몸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란다.” 부모가 아이의 언어로 아이의 성적 궁금증을 읽어주면 아이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좀 더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주제를 아이의 흥분 경험에만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그 흥분이 갖는 좋은 예와 나쁜 예를 알려줘야 한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서로 좋아해서 키스하는 행동은 기본 좋은 흥분을 느끼게 한다. 너도 커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키스한다면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흥분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흥분을 위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성적 행동을 할 때도 있어. 이것은 나쁜 흥분인데 바로 성폭력이라고 하지 하지.” 두 사람의 나란히 서서 서로 맞닿은 쪽의 발목을 끌어서 뛰는 이인삼각을 떠올려보자. 서로의 발 쪽에 맞춰 배려하는 성은 두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건강하지만, 먼저 가겠다고 서두르는 성은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다. 이처럼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접근한다면, 드라마 속 키스 장면은 부모와 자녀의 성적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다. 이 대화의 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가 열린 마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가야 한다.

두 사람의 나란히 서서 서로 맞닿은 쪽의 발목을 끌어서 뛰는 이인삼각을 떠올려보자. 서로의 발 쪽에 맞춰 배려하는 성은 두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건강하지만, 먼저 가겠다고 서두르는 성은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다. 이처럼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접근한다면, 드라마 속 키스 장면은 부모와 자녀의 성적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다. 이 대화의 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가 열린 마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가야 한다.

신(神)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코스모스(Cosmos)는 가녀린 꽃이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하는 대중가요 노랫말처럼 고향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꽃이다.

또한 희랍어로 ‘우주의 질서’라는 의미의 ‘코스모스’는 ‘카오스’(Chaos=혼돈)에 반대되는 말로, 1980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과학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이름이기도 하다. 미국 코넬대 교수였던 전문학자 칼 세이건(1934~1996)이 전

행했던 13부작 프로

그램은 우주과학의 모

든 것을 실감나게 보

여주고, 들려줬다.

중학 3년생이었던 기자는 그때 우주

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듯한 역동

적인 특수효과 화면과 그의 상세하고,

깊이있는 해설에 매료됐던 시청자 기운

데 한 사람�이었다. 그 프로그램은 전세

계 60개 국가에서 5억여 명이나 봤다고

한다.

이듬해 출간된 같은 이름의 책은 당

시 짜장면(350원)의 무려 10배에 달

하는 3700원이나 됐지만 아버지를 즐라

구입한 후 밀줄을 그어가며 읽었다. 지

금도 누렇게 변색한 그 책을 가끔 꺼내

읽는다. 여지껏 별과 우주에 관심을 갖

/송기동 사회2부장 song@kwangju.co.kr

고 있는 것은 순전히 그와 ‘코스모스’ 프

로그램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34년만에 지난 15일부터 새 버전 ‘코

스모스’가 방영돼 화제다. 내셔널지오

그래픽 채널에서 전편과 마찬가지로 13

부작으로 소개된다. 새 프로그램은 미

국 오바마 대통령도 “코스모스”가 새로

운 세대의 모험정신과 상상력을 고취시

킬 것”이라며 시청을 권할 정도로 기대

를 모으고 있다.

같은 날 진행된 국제 우주정거장

(ISS) 우주인과 지상

을 연결하는 생방송도

눈길을 끌었다. 무중

력 상태의 고립된 공

간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미국·일본 우

주인들의 일상 생활이 신기하기만 했

다. 최근 경남 진주에 떨어진 운석과

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등의 영향

으로 별과 우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

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칼 세이건은 저서 ‘코스모스’의 제1

장 첫머리에서 “우주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고 말

한다. 새로운 다큐 ‘코스모스’가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

으면 싶다.

이듬해 출간된 같은 이름의 책은 당

시 짜장면(350원)의 무려 10배에 달

하는 3700원이나 됐지만 아버지를 즐라

구입한 후 밀줄을 그어가며 읽었다. 지

금도 누렇게 변색한 그 책을 가끔 꺼내

읽는다. 여지껏 별과 우주에 관심을 갖

/송기동 사회2부장 song@kwangju.co.kr

간에게 장기간 거주하는 미국·일본 우

주인들의 일상 생활이 신기하기만 했

다. 최근 경남 진주에 떨어진 운석과

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등의 영향

으로 별과 우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

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칼 세이건은 저서 ‘코스모스’의 제1

장 첫머리에서 “우주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고 말

한다. 새로운 다큐 ‘코스모스’가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

으면 싶다.

이듬